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과의 관계

김 영 숙* · 김 명 순** · 조 원 순**

I. 서 론

간호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임상실습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창의적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통한 임상간호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환경의 개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자신에게 요구되는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 정의적 요인들의 파악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이러한 요소들이 임상간호 학습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학생들에게 결핍된 요소들은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교육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학습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써 학습환경에 보다 잘 적응시키고 주어진 과제 수행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본인에게 적합한 임상 실습분야를 미리 결정하게 하고 그 분야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하여 교육효과와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성취와 관련하여 일반교육현장은 물론 간호교육에서 Bandura(1997)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강혜원, 1998; 오미영, 1999; 차인주, 2001).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의 수행 및 학업성취와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 있다(안은경, 2000; 고향자, 강혜원, 2000). 고향자(1992)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로결정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유형을 활용하고 책임을 지며 자율적이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나타내며 목적의식이 분명하다고 한다.

자아존중감은 과제수행 및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 개인이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한 자신과 세계를 정확히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Kelley, 1962). Kramer(1974)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취업 후 간호실무 수행능력의 부족은 그 주요 원인이 자아존중감의 결여에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박지원(2000)도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간호전문직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Schunk(1994)도 자기효능감을 높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능력과 과제수행에 있어 높은 성취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 개인이 가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임상실습 수행, 학업성취 그리고 자신의 전공실습분야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구하고 또한 학생들의 부족한 정의적 요인들을 확인하여 임상실습교육과 학업성취 및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시도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주문식 임상실습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시도되었으며 이 제도는 학생스

* 가천의과대학교 간호대학원 교수
** 가천길대학 간호과 교수

로 실무 전공 분야를 선택하게 하고 각 병원에서는 실습 받고자 하는 분야의 주문을 받아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이 제도는 특정 분야의 간호지식과 기술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고 취업 후 병원에서는 특별한 교육이 없이 직무수행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 선택 동기, 종교, 휴학경험과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전공실습 결정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임상실습수행과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는 임상실습수행정도와 전공실습결정 예측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확인한다.
- 5) 전공실습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 정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자기에 대한 평가나 자기능력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자기수용, 자기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은정(1988)의 번안 도구를 보완하여 자신에 대한 가치감, 긍정적인 태도, 만족, 존경,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항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낮은 자존감, 낮은 자긍심 실패감 등의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묘사하는 말로써 구체적인 자신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인주(2001)와 정현숙(1999)의 번안 도구를 보완하여 전공실습에 대한 좋은 성적의 기대, 자신감, 이해력, 재능,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간호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 실습분

야에 대한 관심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 등의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학업성취

학업성취란 교육과정에 의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습득한 이론적 지식과 임상실무능력, 태도, 가치관 등 학습결과를 총칭하는 개념이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2000년도에 입학하여 2001년도 1학기까지 3학기간 전체 이론, 임상실습 성적을 평균한 학점(credit)의 평점을 활용하였으며 전산실의 집계를 활용하였다.

임상실습수행

임상실습수행은 간호현장에서 학생들의 실무수행정도를 의미하며 임상실습에 만족하고 잘 적응하며 대상자에게 간호의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잘 적용하고 환자, 보호자, 의료인과 원만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전공실습결정

전공실습은 3학년 2학기(2002년 9월- 12월)부터 학생들이 실습장소를 선택하고 병원을 포함한 보건소로부터 학생 실습을 시키고자 하는 분야를 주문 받아 한 학기 동안 같은 영역의 실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공실습 결정은 학생들이 전공실습분야를 어느 정도 확고히 결정하였는가를 의미한다. 측정 도구는 고향자(1992)의 도구를 참조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측정 항목은 진로분야 결정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정보가 필요함, 적성과 능력 파악 부재로 미결정상태임, 진로선택의 불확실함으로 미결정상태임, 적합한 분야를 확인하고싶어함 등을 포함한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수행정도, 학업성취 및 전공실습 결정상태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이므로 일반화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며 학업성취도 임상실습성적 뿐만 아니라 이론성적이 포함되어 순수한 임상간호학습의 평가가 되지 못한 점을 연구 결과의 해석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II. 문헌 고찰

1.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 자기수용, 자기확신, 자기강화, 자아상 등과 유사개념으로 사회인지이론, 자아지각이론 등에서 중시되어 왔으며 인간의 성격이나 행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이다.

Rosenberg(1965)의 정의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란 어떤 내적 기준이나 기대와 비교하여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자아개념의 일부로써 하나의 특별한 개체, 즉 자아에 대한 긍정,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평소에 가지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이 능력과 의미가 있고 성공적이며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정도로 보았으며 자아존중감을 중요도(significance), 능력(competence), 미덕(virtue), 영향력(power)의 네 가지 기준으로 보았다. 김희경(1998)은 자아존중감을 자아개념의 평가 측면으로 보고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써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폭넓게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덜 느끼며 반면 자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의 부정적 면을 크게 받아들인다고 한다(장은영, 2001). 고향자와 강혜원(2000)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덜 느끼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사회적 대인관계의 학습을 통하여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관찰하고 평가해주는 척도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자기효능감

Bandura(1986)는 학습자가 학습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에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자기효능감이라 정의하였으며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선택, 노력의 정도, 지구력 및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어떤 성취결과에 대해서도 능력 부족이 아니라 노력부족이나 전략부족으로 인지함으로써 동기가 저하되지 않고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동기를 유발시켜 스스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고 하였다(김영아, 1998). 김애경(1996)은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성취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도전적 과제를 선호하고 학업에도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오며, 구직활동 및 재취업에 왕성한 면모를 보

인다고 한다(Eden and Aviram, 1993). 김남성(1991)은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보았고 박영신(1997)은 자기효능감이란 자아개념의 한 부분으로서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자신감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였다.

Cozzarelli(1993)와 Gordon(1994)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효능감은 자아존중감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실제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상태의 네 가지 정보원을 토대로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한다(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율김, 1999).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실습수행 및 학업성취 그리고 전공실습분야 결정상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서술적 탐구 조사연구이다.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G 전문대학의 교육부지원 주문식 전공실습 대상 학생(간호과 2학년)으로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 주문식 전공 실습준비 과정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문식 전공실습 준비는 일차적으로 실습기관에 그 취지와 안배를 실시하고 각 산업체로부터 학생들의 실습장소를 주문을 받고, 이어서 각 기관의 실습장소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학생들에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학생들은 2002년부터 (3학년 2학기) 시행할 전공실습분야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을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연령, 휴학 경험, 종교, 간호학 선택동기, 2년간 성적 평점) 5개 문항, 전공실습 선택의 영향 요인 6개 문항, 임상실습 수행정도 5개 문항(Cronbach α = .735), 자아존중감 10개 문항(Cronbach α = .763) 자기효능감 10개문항(Cronbach α = .883) 그리고 전공실습분야 결정상태 10개 문항 (Cronbach α = .854)으로써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은

Likert Scale로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하였으며 부정으로 서술된 문항은 역 산정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높게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각 문항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특성과 계 변수는 t-test로 평균의 차이 검증을 하였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수행정도, 학업성취 및 전공실습 결정상태와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의 임상실습수행과 전공실습 결정상태의 예측기여도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244명 중 연령은 18-20세가 183명(75%)으로 가장 많았으며 24-27세 학생은 8명으로 3.3%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은 129명(52.9%)으로 반 이상이 이었고 휴학경험이 있는 학생은 8명으로 3.3%를 차지하였다. 본인의 의사로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게된 학생은 203명으로 83.2%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학생의 간호학 선택동기가 본인의 의사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4)

	특 성	실수(N)	백분율(%)
연령	18-20세	183	75.0
	21-23세	53	21.7
	24-27세	8	3.3
종교	유	129	52.9
	무	115	47.1
휴학	유	8	3.3
	무	236	96.7
간호학선택동기	본인의사 임	203	83.2
	아니오	41	16.8

2. 임상실습 수행정도

학생들의 간호학 임상실습 수행정도는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 평균 3.78점(5점 만점)으로 대체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환자, 환자 보호자 및 의료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문항이 평균 3.96점(최대 5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임상실습에 이론적으로 배운 간호지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평균 3.82점이었고 이론으로 배운 간호기술의 활용이 3.79점으로서 활용도가 비교적 높았다. 역시 임상에서 상당히 높게 활용(평균 3.79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있다.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은 평균 3.76점으로 김은아, 오윤희(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2.9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평균점수 3.56) 가장 낮은 점수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임상실습을 하면서 의료 인 및 환자, 환자 보호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임상실습수행 (N=244)

임상실습수행	평균	표준편차
1. 임상실습 수행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	3.76	.65
2. 임상실습에 이론적으로 배운 간호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3.82	.56
3. 임상실습에 강의실에서 배운 간호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3.79	.58
4. 임상실습수행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다.	3.56	.69
5. 환자, 보호자, 의료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96	.58
총 평균평균점	3.78	.061

3. 대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계 변수의 차이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인 종교 유무, 휴학 유무 간호학 선택동기와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전공실습결정 정도와의 통계적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 3, 4, 5>와 같다. 종교 유무와 계 변수 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휴학 유무와 계 변수들간의 관계에서는 학업성취 및 전공실습결정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표 4>. 이는 휴학을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는 간호학 전공에 적성이 맞지 않거나 그 외 이유로 학업을 일시 중단했던 학생들로 휴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성적이 좋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휴학을 한 학생들은 전공실습분야의 결정도 잘 하지 못하였고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

특성 중 간호학 선택동기는 제 변수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표 5>. 즉 본인의 의사로 간호학을 전공하게된 학생의 경우는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모두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이는 박재경, 유경원, 박명희(1986)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공실습분야 결정은 입학동기가 본인의사인 경우 더 미정인 것으로 나타나 전공 결정에 신중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 변수와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간의 관계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아존중감과 임상실습수행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상관성을($r=.512$)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수행도 높은 상관성($r=.567$)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과 전공실습결정($r=.377$), 자기효능감과 전공실습결정($r=.441$)도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표 3> 종교 유무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

(N=244)

제 변수	종교	평균	표준편차	DF	t	p
학업성취	유	3.41	.410	242	-.019	.985
	무	3.41	.499			
임상실습수행	유	18.83	2.09	239	-4.08	.075
	무	18.95	2.19			
자아존중감	유	37.66	4.22	238	.083	.934
	무	37.61	4.13			
자기효능감	유	35.13	4.89	236	.872	.380
	무	34.62	4.20			
전공실습결정	유	35.13	4.89	236	.872	.748
	무	34.61	4.20			

<표 4> 휴학 유무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

(N=244)

제 변수	휴학유무	평균	표준편차	DF	t	p
학업성취	유	3.09	.532	242	-2.06	.04
	무	3.42	.448			
임상실습수행	유	18.88	1.13	239	-.017	.941
	무	18.89	2.17			
자아존중감	유	36.75	4.71	238	-.612	.541
	무	37.67	4.16			
자기효능감	유	35.71	4.64	236	.482	.630
	무	34.87	4.58			
전공실습결정	유	31.63	1.51	240	-1.06	.049
	무	32.88	3.31			

<표 5> 간호학 선택 동기 따른 제 변수의 차이

(N=244)

제 변수	간호학선택 동기	평균	표준편차	DF	t	P
학업성취	1	3.44	.432	242	2.66	.008
	2	3.24	.522			
임상실습수행	1	19.1	2.11	239	2.88	.004
	2	18.0	2.10			
자아존중감	1	37.9	4.03	238	2.50	.013
	2	36.2	4.54			
자기효능감	1	35.4	4.59	236	3.72	.000
	2	32.5	3.71			
전공실습결정	1	32.7	3.28	240	-1.94	.050
	2	33.7	3.11			

1:본인의사, 2: 본인의사 아님

<표 6>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과의 상관성 (N=244)

변 수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전공실습 결정	
	r	p	r	p	r	p
자아존중감	.512	.000	.129	.000	.377	.000
자기효능감	.567	.000	.098	.132	.441	.000

주었다. 즉 자아 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 실습 수행을 잘 하였고 전공실습분야 결정을 잘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와 유의한 정적 상관 (r=.129)을 나타냈으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배정숙 (1998)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간에 높은 상관성(r=.40)이 있었고 Jeffreys (1993), Schreiber(1995), 김애경(1996), 오미영 (2000)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학습성취간에 유의 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판별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5. 임상실습수행과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과의 관계

임상실습수행과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과의 관계는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임상실습 수행과 학업성취간 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공실습결정 과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주었다. 이는 임상실습 수 행을 잘하는 학생이 전공실습분야도 미리 결정을 잘 하 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간호 실무에 적응을 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성취와 전공실습결정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학업성취 정도가 높을수록 전 공실습분야의 미결정도가 높음을 볼 수 있으며 좀더 신 중하게 진로를 결정하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6. 임상실습수행의 예측변수

임상실습수행을 종속변수로 하여 대상자의 일반특성 (간호학 선택동기, 종교유무, 휴학유무)과 학업성취,

<표 7>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의 상관성 (N=244)

변 수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	
	r	p	r	p		
임상실습수행	-					
학업성취	.111	.089	-			
전공실습결정	.498	.000	-.001	.984	-	

<표 9> 전공실습결정 예측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공실습결정	R	R ²	β	F	P
제 1단계 임상실습수행		.142	.020	-.142	4.68	.0315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변수들이 임상실습 수행의 예측 정도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단계별 (Stepwise로 투입함)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자기 효능감이 33.8%예측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은 3.85%를 추가하여 총 37.7%의 설명력을 보여주었 고 그 외 변수들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대인관계 능력과 문제 중심 사고 그리고 적극 적인 대처 능력을 요구하는 임상에서 실무실습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자기효능감과 자 아존중감의 배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의적 요소임을 의미한다.

<표 8> 임상실습수행 예측 변수

독립 변수/종속변수	임상실습수행				
	R	R ²	β	F	P
단계 1. 자기효능감	.581	.338	.581	115.9	.000
단계 2. 자아존중감	.614	.377	.240	68.2	.000

7. 전공실습결정 예측변수

전공실습결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임상실습수 행,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 변수들의 예측정도를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임상실습수행 변수만이 2%정도 설명에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을 통해 전공실습 분야 결정에 가장 많은 정보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전공실습 선택에 영향을 미친 정도

학생들의 전공실습분야 선택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평균점수 4.07) 실습기관의 발전적 전망이나 취업희망(평균 3.88)이 다음 순서로 높았으며 부모의 권유(평균점수 2.42)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낮았다. 추수경, 전은미(1998)의 연구에서도 진로 및 취업결정 영향요인은 본인 의사가 79.8%로 가장 높았고 부모님의 의사는 9.2%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임상의 전문적인 분야의 선택이므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였다는 응답은 매우 적절한 진로결정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표 10> 전공실습분야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

(N= 244)		
영향요인	평균	표준편차
기관장의 홍보	3.64	.74
교수지도	3.43	.71
부모님 권유	2.42	.84
자신의 적성과 흥미	4.07	.63
실습기관 취업 희망	3.72	.77
실습기관의 발전적 전망	3.88	.75
총 평균평점	3.54	.74

V. 결 론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및 전공실습 결정 상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주문식 전공임상실습을 시행할 G 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 244명이었으며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을 묻는 5개 문항, 임상 실습수행 정도를 묻는 5개 문항과 자아존중감 관련 10개 문항, 자기효능감 관련 10개 문항, 전공실습결정상태를 묻는 10개 문항으로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분포는 18-20세가 183명(75%)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있는 학생은

129명(52.9%)이었으며 휴학경험이 있는 학생은 8명(3.3%)이었고 본인의사로 간호학 전공을 택한 학생은 203명으로 83.2%를 차지하였다.

2. 임상실습수행 정도는 평균점수가 3.78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수행을 잘하고 있는 분야는 임상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항목으로 (평균점수 3.96) 나타났고 가장 수행정도가 낮은 분야는 실습현장에서 의사소통(평균 3.52)이었다.

3. 학생들의 일반특성과 제 변수의 차이의 검증결과 종교유무와 제 변수간의 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생들의 간호학 선택 동기와 휴학유무는 학업성취 및 전공실습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간호학 선택 동기가 본인의사인 경우는 임상실습수행, 학업 성취,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실습 결정 변수가 본인의사가 아니라고 응답한 학생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4. 자아존중감은 임상실습수행과 높은 유의한 상관관계($r=.512, p<.000$)를 나타내었고 자기효능감도 임상실습수행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상관성($r=.567, p<.000$)을 보여주었다.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는 상관성은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r=.129, p<.000$)를 보여 주었으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전공실습결정과 유의한 상관성($r=.377, p<.000$)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도 전공실습결정과 높은 상관성($r=.441, p<.000$)을 보여주었다.

5. 임상실습수행과 학업성취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으나 전공실습결정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r=.498, p<.000$).

6.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임상실습수행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37.7%의 설명력을 보여 주었다. 임상실습수행은 전공실습결정 예측에 2%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학생들의 전공실습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평균 4.07) 가장 높게 반영되었고 부모님의 권유는 (평균 2.42점) 가장 낮게 반영되

었다.

결론적으로 학업관련 정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임상간호 학습을 위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혜원 (1998). 학업에 대한 성패귀인, 자기효능 및 내적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12*(2), 85-107.
-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 강혜원 (2000). 가치지향, 자아개념, 및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대학생활 연구, 14*, 69-95.
- 김남성 (1991). *인지적 행동수정* 서울: 교육문화사.
-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옴김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Albert Bandura 지음): 교육과학사.
- 김영아 (1998). 동기이론의 교육현장적용 연구와 과제 (자기효능감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2*(1), 105-128.
- 김애경 (1996). *메타인지 훈련이 귀인양식, 자기효능감, 및 수학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아, 오윤희 (2000).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
- 김희경 (1998). *입원노인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가간호역량과의 관계*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1997).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통제부위 신념의 형성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1*-173.
- 박재경, 유경원, 박명희 (1986). 간호전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조선전문대 논문집, 7*, 137-151.
- 박지원 (2000). *간호사가 지각한 삶의결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보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배정숙 (1998).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경 (2000).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업무성과 구조 모형구축*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양은주 (1997).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연구*(태도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오미영 (2000).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및 교육과정 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숙, 임승주 (1992). 자아존중감, 질병에 대한 귀인 유형, 우울의 관계. *간호과학, 5*, 90-105.
- 정현숙 (1984). *간호원의 자아실현성의 정도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1999).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귀인성향이 수학문제 해결양식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전공, 석사학위논문.
- 차인주 (2001).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 (1998). *대입수험생의 스트레스 반응 양상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 추수경, 전은미 (1998). 간호학생의 진로 및 취업의사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280-29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s and action*. New York: Prentice-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19-215.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zzarelli, C. (1993). Personality and self-efficacy as a predictors of coping with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224-1236.
- Eden, D., & Aviram, A. (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352-360.
- Gordon, Y. V.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self-esteem and burnout among nurse middle managers*, Unpublished Doctoral

- Dissertation, Adelphi University.
- Jeffreys, M. R. (1993). *The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and select academic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ret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 Kramer, M. (1974). *Reality shock*. St. Louis: C.V. Mosby Co.
- Kelly, E. C. (1962). *Therapy and the flow of thought*. New York: Plenum press.
-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reiber, N. (1995). *Contribution of explanatory style and other personal attributes to measures of retention and succ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yola University Chicago.
- Schunk, D. H. (1994). Ability versus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 Differential effects on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6), 848-856.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cademic Achievement, Decision Making of Major Field in Clinical Practice

Kim, Young Sook* · Kim, Myung Soon**
Cho, Won 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cademic achievement, decision making of

major field in clinical practice .

The study subjects consisted with 244 students from G. junior nursing college that will adapt a new majoring program of clinical nursing practice funded by Ministry of human and resources development.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tudents were relatively performed well in clinical practice setting (total M :3.78). The item of student's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patient's family, and professional staff showed high score (M=3.96). However students did not feel comfortable to communicate with patients, patient's family and professional staffs in clinical setting(mean= 3.56).

2. Students who had experiences of temporal absence from schoo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riable of academic achievement and decision making of major field in clinical practice. Students who entered to nursing school with self-motive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riable of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self-efficacy, and decision making of major field in clinical practice.

3.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r=.512$, $p<.000$). And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ecision making of major field in clinical practic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r=.377$, $p<.000$). Self-efficacy and

* Gachon Medical School , Graduate School of Nursing

** GaconGhil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r=.567, p<.000$), and decision making of major field in clinical practice ($r=.441, p<.000$)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Also 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revealed a significant correlation($r=.129, p<.05$) but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not significant.

4.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nd decision making of major field in clinical practice also identified a significant relation($r=.498, p<.000$).

5. Self-esteem and self-efficacy variables predicted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nd explained 37.7% of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6. Aptitude and personal interests($m=4.07$) revealed important factor affecting to select majoring area in clinical practice, and advice from parents reflected low percentage on selecting places($m= 2.42$).

In conclusion, the variable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variables of student's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cademic achievement, and decision making of major field in clinical practice. Thus it is recommended that student's affective domain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should be developed by nursing intervention before clinical nursing education.

Key words : Self-esteem,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